춘천 성시신문

The Chun Cheon Holy City News

나침반

교회갱신 · 부흥 · 복음화운동
교회연합일치운동
새로운 도시 모범시민운동
세계복음화 기도운동

www.holycity.or.kr

2005년 1월 1일

(1998년 9월 15일 창간) 제86호

발행인 : 박 상 호

2. 새해 새 아침이 밝았습니다
4. 혁신도시에 대한 상황보고
5. 하늘과 땅의 다리를 놓는 화목교회
8. 창세기, 마태복음을 통해 본 새해설계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춘천기독교연합회장 박 상 호 목사

한 해가 가고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되었습니다. 하루하루의 삶이 특별한 변화가 없는듯한데 그래도 시계의 초침이 흠러감과 함께 세월이 흠러갔습니다. 그리고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요즘 세계도 시끄럽고 우리나라도 시끄럽습니다. 쓰나미나 허리케인 못지않게 우리 마음을 할퀴고 지나간 많은 사건들을 겪었습니다. '국가보안법', '친일청산' 문제로 시끄러웠고, 엉뚱하게 맥아더 동상을 가운데 놓고 패싸움도 했고, '개혁'이니 '진보'니 '보수'니 하면서 편이 갈려 목청 높이며 삿대질도 했습니다. 거기에 가세하여 군복무 양심선언이라는 뜽딴지같은 소리로 오히려 군대 가는 젊은이는 양심선언도 못하는 바보로 취급되는 어리석음에 빠지기도 했습니다. 게다가 기업도시니 혁신도시니 하는 문제는 우리 강원도에 패 가름의 우려와 갈등을 주었습니다.

이 갈등의 거리에 교회가 서 있습니다. 따라서 교회도 시끄럽습니다. 어찌다가 기독교연합회가 혁신도시 비상대책위원회 상임대표 자리를 책임지게 되어 연말을 어떻게 보내고 있는지 조차 의식하지 못할 정도였습니다.

이러다가 나라도 망하고 교회도 망하지 않을까하는 걱정이 앞섭니다. 몇 사람의 현명치 못한 정책인 혁신도시로 인해 온 나라 안이 아수라장이 된 것 같은 기분입니다. 그래도 새해는 밝았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성이 망한 것은 죄가 관영함 때문이 아니라 의인 열 명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요나가 예언하기를 니느웨는 사십일 후에 망한다고 하였으나 망하지 않은 이유는 성읍의 모든 사람이 금식하며 잿더미에 앉아 회개하였기 때문입니다. 새해에는 모든 교회가 회개와 전도운동의 블길을 일으킬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우리가 어떤 자리에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든 간에 부인할 수 없는 것은 우리 모두는 역사의 격변기에 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중요한 시기에 역사의 주체인 우리는 역사변동이나 사회질서 재편성 현상을 어떻게 보고 어떤 삶을 꾸려야 하는가 하는 갈등이 있으나, 이찔 수 없이 이 갈등을 역사학적 상식에 기대어 우리 사회의 갈등 현상을 읽을 수밖에 없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이제 새해에는 성도가 하나님 앞에 바로서고 교회가 하나님 앞에 바로서고 이 민족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도록 회개의 운동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여 이 도시가 거룩한 도시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현실적으로 다소 답답함을 금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예수 그리스도의 가슴으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품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펼쳐지는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춘천기독교연합회 모든 소속교회들의 부흥과 성장과 세계선교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달의 말씀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리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것이 되었도다

세계를 품는 그리스도인

· 새로 선임된 모든 기관들의 지도자를 위해

모든 기관들이 새 임원의 체제 속에 새 해를 맞아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춘천 성시화라는 늘라운 프로제트를 완성시키기 위해 맡겨진 분야에서 충성된 선한 청지기가 되도록.

· 나라와 강원도를 위해

혁신도시 선정의 불공정 시비로 인한 시위가 계속되었지만 결국 강원도의 원론대로 확정하며 건교부에 보고된 상황이다. 따라서 시와 범대위는 사법부나 감사원에 의한 법적인 판결을 추진하고있다. 그리고 이 사안은 한반도 전역에 갈등과 반목으로 이어지고 있다이에 한반도가 화합을 이루도록.

· 춘천의 발전을 위한 정책적 대안마련

강원도는 춘천시가 공감할만한 새로운 도시 발전을 위한 정책대안을 마련하고 시민들의 적극적인 호응을 얻어 복된 춘천의 미래를 열어갈 수 있도록.

· 새롭게 결성된 홀리 클럽

성시화의 중요 핵심 역할을 하게 될 홀리 클럽의 재 결성을 축하면서 이를 통해 성시운동본부 안에 기도운동과 정치 경제 문화영역의 진정한 영적 변화와 회복이 도시 안에 확대되도록.

· 춘천을 위한 중보기도단의 운영

1월 16일 오전 11시 월드비전 3층에서 춘천을 위한 범 중보기도단을 발족한다. 지금까지 흩어져서 기도하던 복회자, 평신도들이 함께 연합하여 도시의 변화를 위한 전투적 기도가 계속되도록.

신(편)입생 모집안내



이사장 김 주 환 목사



학장 이 춘 일 목사

모집학과 및 응시자격

모집학과	과 정	응 시 자 격
신 학 과 (야간)	4년제	1. 고등학교 졸업이상 또는 동등자격을 갖춘자 2. 신앙생활 및 가정생활에 무흠한 자 3. 침례(세례)를 받은 자 4. 타 신학교 2년 이상 수료자 및 전문대 이상 학력소지자(단, 편입생에 한함)
목회학과 (야간)	3년제	
편 입	2년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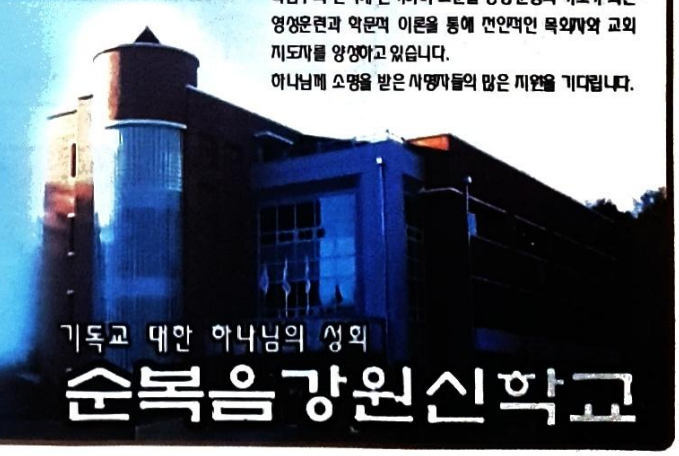
※모집기간 : 2006년 2월 18일 까지

교무처 : (033)253-2796, 257-2740, 016-342-4812 FAX : 241-2741

본교는

복음주의 신학에 근거하여 오순절 성령운동의 기초가 되는 영성훈련과 학문적 이론을 통해 전인적인 목회자와 교회 지도자를 양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소명을 받은 사명자들의 많은 지원을 기다립니다.



기독교 대한 하나님의 성회

순복음강원신학교

2006년 새해



"성시화 운동은 우리 모두의 사명"

한국홀리클럽연합회 공동회장 양 인 평 장로

금년은 춘천홀리클럽과 춘천성시화운동본부가 창립된지 10년이 되는 뜻깊은 해입니다.

성시화운동의 발상지인 춘천에서 시작된 이 성시화운동이 한국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운동으로 발전한 큰 이유는 춘천교회와 성도들의 끊임없는 기도 때문이라고 확신합니다.

새해에는 이 성시화의 불이 지구촌 곳곳에 번져나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하나 되어 사명을 감당합시다.



성시화운동 모델코서의 춘천

부산성시화운동본부장 정 필 도 목사

춘천은 하나님께서 성시화운동을 시작하게 하신 축복의 도시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새해에는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호반의 도시 춘천시민 모두를 구원하고 성시화를 이루어 민족복음화에 앞장서게 되는 귀한 열매로 나타나길 기원합니다.

특별히 복음의 능력이 크게 확산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에 전국에서 도시마다 일어나는 성시화운동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복음의 도구임을 확신하며 성시화의 비전을 함께 이루기 위하여 지역 간 상호협력과 연합전선을 구축하는 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무엇보다도 2006년 개최되는 세계성시화운동 부산대회는 지역 본부가 함께 협력하는 가운데 세계 열방에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하고 모든 민족으로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인정하게 만드는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원년의 해가 되길 소원합니다.

2006년 새해에는 치유와 화평이…



국회의원 허 천 장로

존경하는 춘천시민 여러분 !

2006년 새아침이 밝았습니다. 우리 주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넘치시기를 기원합니다.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그 어느 때보다 힘들었던 지난 한 해, 소망을 잃지 않고 인내하며 함께 해준 춘천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교수신문은 지난해의 사자성어를 상화하택(上火下澤)으로 정하였다고 합니다. 이는 위는 불이고 아래는 못이라는 뜻으로 지난해는 분열과 갈등의 한 해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새해에는 정치, 경제, 사회 모든 분야에 걸쳐 야기된 분열과 갈등으로 얼룩진 상처를 치유하고 공의가 흘러넘칠 수 있어야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먼저 푸르고 푸른 '청년의 비전' 을 갖고 '살기 좋은 춘천' 을 함께 만들어갑시다. 퇴색되지 않는 청사진으로 자연과 사람 그리고 비전이 어우러진 "Clean & Peace" 춘천을 만들어 갑시다.

어떤 상황과 어떤 조건하에서도 우리의 비전을 결코 멈추어서는 안됩니다. 여러분의 생각과 잠재의식에서 부정적 과거를 깨끗이 제거하고 미래의 비디로 나아가기 바랍니다. 우리의 능력이 크든 작든 그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기를 원하며 각각 자기의 일을 감당하여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주님이심을 기억합시다.

새해 하시는 일마다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복이 넘치시기를 기원드리며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성시화운동은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



대구성시화운동본부장 조 돈 제 목사

희망찬 새해를 맞이하며 춘천성시화운동본부 및 홀리클럽에 주님의 크신 은총과 선하심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뒤돌아보면 지난해에도 어려움과 많은 시련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기 위해 기쁜 마음으로 묵묵히 수고하신 여러분들의 노고와 희생에 깊은 감사와 격려를 보내드립니다.

성시화운동은 우리의 생각과 계획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역사하심으로만이 가능할 수 있는 운동입니다. 또한 이 운동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며, 주님이 오시는 그 날까지 계속되어야 합니다. 힘쓰고 애쓰는 만큼의 효과가 눈에 보이지 않고, 많은 어려움과 시련이 닥칠지라도 주님 앞에 우리가 맡은 바 최선을 다한다면 이 시대에 우리의 일은 다한 셈일 것입니다.

춘천 성시화를 위해 힘쓰시는 여러분들!! 2006년에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성숙한 모습을 보이는 한해가 되도록 노력합시다. 새해에도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길 기도합니다.

춘천성시신문

편집위원 : 박 상 호 조 영 춘
최 영 조 최 상 도
정 재 호 이 영 규
권 기 찬 김 춘 배
김 미 경

원고투고 및 광고 문의
200-091
춘천시 효자1동 373-90
춘천성시신문 앞

대표전화 : 033)256-1260
FAX : 033)257-1260
011-361-2004
010-7347-9004
010-3118-9355

해 비 타 트

Habitat for Humanity Chuncheon

- 한국사랑의 집짓기 운동 연합회 춘천지회 -

우)200-030 춘천시 요선동 9-1 TEL : 254-0009 FAX : 254-8877 E-mail : chuncheon@habitat.or.kr ☎ 254-0009



춘천지회는 지난 12월 16일 신성교회에서 이사장 이.취임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설립당시부터 수고하시던 배계섭 이사장님이 사임하시고 앞으로 명예이사장으로 수고하시게 됩니다. 취임하신 김창수 이사장님은 신성교회 담임목사님이시며 동부연회 감독과 강원도 기독교 연합회 회장 및 사단법인 사랑의 장기기증 춘천지부장을 지냈습니다. 앞으로 더욱 하나님이 주신 사랑을 가지고 Habitat 주택은 계속 집이 지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그동안 후원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새해에 복 많이 받으시고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 Habitat 주택, 사랑의 집은 더욱 알차게 계속 지어질 것입니다. 지속적인 관심과 사랑 하시는 마음으로 이웃 분들에게 알려 주셔서 동참하시는 기회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후원은 1구좌에 2천 원 이상 자유롭게 가입하셔서 후원계좌로 : 농협 (예금주 사랑의 집짓기 춘천지회) 203-01-510404 납부하여 주시면 되십니다.

새 아침이 밝았습니다.

할렐루야! 주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춘천기독교 교역자연합회회장 최 현 묵 목사

새해 새 아침이 밝았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희망의 새해가 되길 기원합니다.

누구나 희망찬 새해가 되길 소원하지만 권력을 가진 자도, 부귀를 가진 자도, 명예와 지식을 가진 자도 불안과 염려와 근심에 대하여 떨쳐버릴 수 없는 것은 미래가 사람에게 있지 아니하기 때문입니다. 미래는 하나님의 주권에 있습니다. 이런 우리에게 항상 희망이 넘치는 약속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 예수(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자)로 오셨고, 임마누엘(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로 오셨습니다. 이것은 우리 모두에게 가장 큰 축복의 은총입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믿읍시다. 전능하신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어떤 환경이든, 어떤 상황이든 복이 되도록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거하는 춘천시를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함께하시고, 다스리시는 성시화가 이루어져서 모두가 살고 싶어 하는 복 있는 도시가 되기를 기원하며 축복합니다.

나눔과 섬김의 한해가 되시길...



월드비전 이 명 신 관장

아직도 우리 주변에는 식사 한 끼 편하게 하지 못하는 이들, 누군가의 보살핌이 필요한데 그냥 방치되어 있는 이들, 인간적인 대접을 받지 못하고 학대받는 이들, 함께할 이웃이 없이 소외되어 있는 이들, 주님을 만나지 못해 영적으로 눌리고 어둠 가운데 있는 이들, 이 모든 이들이 주님 만남으로 자유케 되는 역사가 이 땅 춘천에서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기 위해 이미 주님의 은혜를 누리고 있는 자들이 일어나야 하겠고, 나눔 · 섬김을 통하여 살아있는 믿음의 생활로 춘천을 변화시키는 기적을 보기 원합니다.

새해가 밝았습니다.



춘천YWCA 회장 차 혜 자

밝은 세해를 허락하시고 선한 사업에 동역케 하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춘천성시화를 위해 기도와 협력으로 함께 하신 춘천지역의 모든 교회와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크신 은총과 축복이 임하시길 기원합니다.

우리 YWCA는 여성이 만드는 건강한 세상을 목표로 하여 금년에도 생명사랑 공동체 운동을 펼쳐갈 것입니다. 모든 분들의 사랑과 기도, 그리고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생명과 평화가 넘치는 2006년이 되길

청소년에게 사랑과 희망을, 춘천을 밝고 푸른 행복한 도시로!



춘천YMCA 사무총장 신 덕 진

YMCA는 1844년에 시작된 자발적, 세계적, 에큐메니칼 기독교 청년 운동입니다. 이에 YMCA는 기독정신을 바탕으로 모든 피조물들이 충만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정의에 기초한 사랑과 평화 그리고 화해의 인간 공동체를 건설하려는 기독교적 이상을 나누기 위해 끊임없는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청소년들에 대한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청소년들은 우리 모두가 상상하고 있는 아름답고 조화로운 세상을 만들 수 있는 희망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청소년들의 영, 지, 체 균형잡힌 성장과 비전을 갖도록 촉진하고 아낌없는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2006년 새해에는 이기적이고 폭력적인 모습에서 더불어 함께 살아가며 섬김과 나눔의 생활로, 그리고 폭력적이고 차별적 생활에서 평화와 생명을 소중히 느끼며 다름을 인정하는 모습으로, 또한 분쟁과 갈등의 혼란한 사회가 화합과 치유의 사회로 변화되는데 온 기독 관련 단체와 함께 노력하길 기원합니다.

나와의 조화(Harmony with self), 신과의 조화(Harmony with God), 다른 사람과의 조화(Harmony with others), 자연과의 조화(Harmony with creation)로운 작은 실천이 우리는 보다 아름답고 생명과 평화가 넘치는 자신과 가정, 그리고 사회를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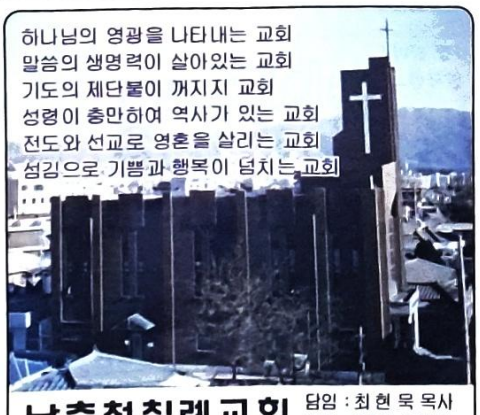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시길...



춘천장로연합회장 박 한 병 장로

2006년 병술년(丙戌年) 한해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춘천시 기독교연합회에 속한 모든 교회 위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1907년 평양 장대현교회의 부흥 운동이, 성시화의 첫 출발지인 이곳 춘천에서 다시금 불길처럼 타올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도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도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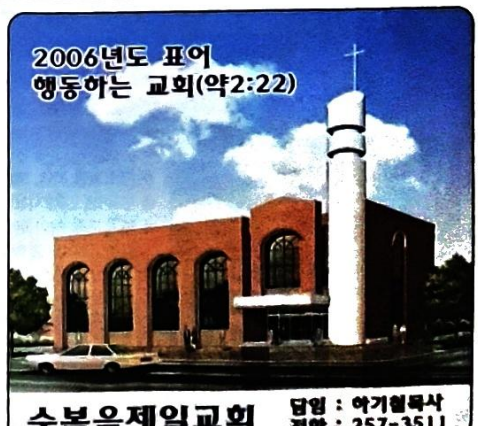
원초적 복음을 힘껏 전파하는 교회, 지역사회를 섬기며 봉사하는 교회, 가난하고 소외된 이웃의 친구가 되어주는 교회, 삶의 희망과 기쁨을 더해주는 교회, 구세대의 순교자적 믿음과 신세대의 역동적 믿음이 어우러져 믿음의 계보가 이어지는 교회들로 아름답게 쓰임 받는 복된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남춘천침례교회 담임 : 최 현 묵 목사 전화 : 253-8045



순복음춘천교회 담임 : 김 주 환 목사 전화 : 253-2741



순복음제일교회 담임 : 하기철목사 전화 : 257-3511

성 시



혁신도시에 대한 상황보고!!

춘천기독교연합회는 혁신도시유치에 대한 회의론이 팽배하던 때, 이 문제가 춘천의 미래에 중요한 전략이 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당시 연합회장 유진형목사님이 조찬기도회를 주선하였다. 이를 통해 범 종교 시민사회단체가 연합하여 "혁신도시를 위한 범 종교시민결의대회"를 개최하게 되면서 이 일에 뛰어들었다.

기독교연합회와 지도부는 마치 3.1운동 때와 같이 범 종교를 포함하여 넓게 혁신도시의 현안문제를 적극적으로 품으며 대규모 시민집회를 주도하여 나아갔다. 이를 통해 그동안 불공정으로 지적되던 7명의 연대출신 교수의 전격적인 교체가 이뤄지게 되었다. 그 후 재선정된 위원들은 강원도 10개 시, 군을 돈후 그 결과를 12월 4일 발표하게 되었다. 그동안 월등한 조건의 춘천은 가장 유력한 지역으로 떠오르며 기대를 모았지만, 그러나 막상 발표에서는 19명의 선정위원 중 10명이 지지해준 춘천은 떨어지고 6명이 지지해준 원주가 점수에 의해 선정되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넌센스가 연출되었다. 후에 확인한 바에 의하면 4명의 원주 측 교수들의 담합성 몰아주기식의 몰상식한 의도에 의한 어이없는 점수제의 폐해임이 드러났다.

이에 즉각 시민들은 범 시민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며 수석대표로 연합회 신임회장 박상호목사님을 선임하고, 불공정의 문제 앞에 정의의 승리를 위해 강력하게 맞대응 하기 시작했다.

12월12일 체감온도 영하15도의 혹한 속에서 춘천 최대인파인 약 2만 여명이 모여 성토를 위한 결의대회를 개최하였고, 이후 비대위는 실상의 문제를 밝히며 확실하게 도지사와 관계공무원들과 협상에 돌입하며 언론을 통해 실상을 알리기 시작했다. 시민들 중에는 일인시위가 시작되었고, 또 단식농성에 돌입하는 사람들이 일어났다. 이어 건교부에 보고를 할 시점이던 22일 또 다시 그 추운 칼 바람을 맞받으며 2차 대회를 촛불집회로 결행하며 혁신도시 선정의 부당함으로 인한 춘천시민의 울분과 억울함을 강원도와 건교부 국가균형발전 위원회, 대통령 등에 호소하였다.

이어 연속적인 도지사와의 담판으로 해결안과 시민의 요구를 강청하며 전달하였고, 강릉시와의 연계 등을 통해 공정하게 문제를 풀고 해결할 수 있는 최선을 모색하였다. 그러나 도지사는 12월 28일 결국 원래 발표했던 그대로를 확정하겠다고 하며 춘천의 정당하고 강력한 요구를 완전히 묵살하고 말았다.

이에 지금까지 평화적 시위를 주도하던 비상범대위가 해체를 하고 강경노선을 주장하던 시민들에 의한 투쟁위원회가 결성되어 3차 집회가 30일 비상적으로 개최되었다. 이날 계란 1만여 개를 준비하고 지속적 쟁투를 계속하기로 결행하는 등 시민의 분노가 날로 거세어지며 폭력적으로 번하는 양상을 띄었다. 이런 긴급한 상황 속에 기독연합회장님과 함께 비대위 실무집행위원들은 시민들의 민의를 담으며 바르게 문제를 해결하려고 다양한 방법과 최선의 지혜를 동원하며 기도하는 마음으로 여기까지 오게 되었다. 그리고 현재 법적인 호소와 함께 정부요처에 우리의 요구를 전달하려는 상황도 전개되고 있다.

이 일을 섬기면서 혁신도시문제를 통해 우리 모든 성도들과 교회가 인지해야 할 몇가지 사안들을 알려드리면서 이젠 더 깊고 강한 기도가 필요한 때 임을 간청한다.

1. 춘천시민의 깊은 상처와 아픔은 혁신도시뿐만이 아닌 이전의 중점 정책들이 좌절되며 춘천이 낙후되고 있다는 절망감에서 기인한다.
   일례로 그린벨트에 의해 28년간 개발이 완전 통제되었고 수도권의 상수원을 위해 공장들이 문을 닫았다. 실상가상 미군부대의 이전 등으로 경제적 기반이 무너졌고, 또한 가장 유력했던 태권도 공원도 평창동계올림픽과 맞물려 정치적 빅딜사안이 되어 터무니없는 타 도시로 넘어 간데 이어 이번엔 혁신도시마저 강탈당하는 등 현재 행복도시보서의 발전 가능성들이 무참히 무너지는 상황이다. 이젠 심지어 강원도청도 옮기려 한다는 깊은 위기의식과 함께 여러 중요기관들이 원주로 본사를 옮기는 등 실제적 위기감들이 증폭되고 있다.

2. 실제 불공정 혁신도시로 인해 춘천시민과 도시는 엄청난 타격을 받고 울분 속에 고통 당하고 있는 기가 막힌 현실이나 막상 강원도지사는 진심으로 듭고 해결해 보고 싶지만 선정위원들에게 준 자율범위 안의 점수이므로 정당하기 때문에 자기 권한으로는 번복할 수 없다고 손을 털고 있는 상태이다. 건교부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역시 이 문제는 강원도 내부의 일이므로 자체적 조정을 하라며 도지사에게 문제를 떠넘기고 있는 상황이다.

3. 도지사는 마치 사탕발림하듯 이런 시민들의 울분이 일어날 때마다 C5개발계획이나 20만평 산업단지 조성 등을 발표해 왔지만, 막상 실효성과 실제 활동은 미미한 선심성, 무마성 정책으로 호도되고 있는 실정이다.

4. 일설에 의하면 도지사와 시장의 관계가 심각하게 깨어져 이번 혁신도시와 같은 중요한 정책적 사안에 불통이 되었다는 안타까운 이야기가 강하게 회자되고 있다. 만일 이것이 사실이라면 이는 지사와 시장만의 문제는 아닐 것이다. 이는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의 정신에 의한 관계회복과 연합이 이 사건의 회복만큼이나 크다고 아니할 수 없다. 절대 불화와 반목을 통해서는 도시의 발전과 강원도의 발전이 이뤄질수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따라서 지사도 시장도 회개해야 한다. 참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 되시는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려야 한다. 정말 정치적 집사가 아닌 신앙적 참 집사로, 참 지도자가 되어 화합을 이루도록 해야 하는 것이다..

5. 지금 춘천은 강도를 만나 피 흘리며 쓰러져 신음하는 사람과 같다. 이때 모든 성도들은 무관심하고 자나가던 제사장이나 다른 일에 바쁘다고 외면하던 레위인처럼 되어서는 안된다. 진정한 사마리아인과 같이 세상의 아픔을 품고 치료하며 섬기고 도우려는 사랑의 자세로 이 도시와 모든 시민의 문제를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야 한다. 또한 우리는 원한 맺힌 과부의 심정이 되어 불의한 재판장을 설득하던 강청의 기도로 힘으로도 능으로도 안되는 이 절망적 상황을 이겨나가야 한다.

6 지금까지 우리 모든 교회와 성도들은 나라와 민족의 위해 기도해 왔다. 춘천은 성시화의 비전을 통해 민족복음화의 불을 냅이며, 이 한반도 땅에 소망을 심어온 갈릴리 같은 복있는 도시이다. 성시화의 비전처럼 정치, 경제, 문화가 하나님의 손길에 의해 변화되어 이 도시안에 있는 모든 시민들이 하나님의 공의와 복음으로 행복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 모두의 진정한 소망이다.

이제 우리는 이 어려한 혁신도시의 문제 앞에 참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역사하시도록 우리의 두 손을 높이 들 때이다. 교회가 겸손하게 무릎 꿇어야 한다. 힘력하여 선을이루어야 한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은 하실 수 있으시다. 반드시 이루신다. 불법은 절대 진실보다 강할 수 없다. 이로 상처받고 낙심해 있는 모든 춘천시민들이 하나님의 위로와 복을 받아 새해를 힘차게 출발하길 소망한다.

춘천성시화운동본부 사무총장 조영춘





"어린이 마음마다 하나님 사랑 가득"

C.C.C. 어린이집 원아모집



♣ 4·5·6·7세 연령별 선착순 모집
♣ 저소득층 자녀, 목회자 자녀, 형제 감면 혜택
♣ 정규반(오후2시30분까지), 종일반(오후6시까지)
♣ 특기교육: 영어(매일교육)·피아노·미술·체육·음악·수학·과학특별교육·놀이학습지도
♣ EQ발달을 위한 다양한 학습활동·프로젝트 수업
♣ 자연학습장 운영, 실내외 놀이터, 넓고 쾌적한 강당
♣ 어린이 눈높이의 신앙교육(주1회 어린이예배)

※ 신앙과 영성의 표준인 성경말씀의 교훈을 따라 기도의어머니처럼 전문적인 전인교육을 실시합니다.

◆ 교육문의: 033)255-5776, 010-9533-5776
◆ 위치: 춘천시 후평2동 C.C.C. 아카데미하우스 내(한신아파트 옆)

석사지구 유일의 대형주차장 완비!
천국인의 집!



NEW 본향

국산만 고집하는
등갈비 / 막국수
만두국 / 녹두전

소양성결교회를 섬기는 최혁종, 최종희
전화 (033) 263-0922

스무숲경로당공원 옆 '본향'을 찾아주시면 정성껏 모시겠습니다.

하늘과 땅의 다리를 놓는 교회

의미있는 교회탐방순서로 화목교회(문충식 목사)편입니다



아름다운 전원(田園)에 위치한 화목교회는 1986년에 창립, 20주년을 맞이하는 교회이다. 화목교회는 가정 교회로 세워지는 교회, 평신도를 동역자로 세우는 교회, 선교를 실천하며 이웃과 함께 하는 교회,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교회를 지향하며, 성경적 가정의 회복을 이루기 위하여 불신자 가족 전도에 힘쓰는 것을 사역의 목표로 삼아 나아가는 교회이다. 주안에서 아름답게 지어져 가는 화목교회의 지난 이야기들을 함께 들어보자.

문 목사와 화목교회

후평동에서 춘천 외곽순환도로로 진입하기 위해 시내를 벗어나노라면 여름에는 푸르른 녹음으로, 겨울에는 하얀 설경과 함께 하늘과 맞닿은 화목교회가 시야에 들어온다. 보기만 해도 정겨운 전원교회(田園敎會). 그곳에는 마음 따뜻한 문충식 목사와 김영희 사모, 그리고 아름다운 교우들이 주님을 섬겨오고 있다.

문 목사는 강원도 홍천이 고향이다. 그가 춘천과 인연을 맺게 된 것은 부친을 따라 춘천에 정착하면서부터. 잠시 서울에서 직장생활을 하기도 한 그는 춘천 효신교회 방지산 목사의 격려로 목회자로서의 길을 걷게 된다.

1986년 8월 15일. 이날은 화목교회가 창립된 매우 의미있는 날이다. 광복의 기쁨과 함께 이 땅에 구원의 감격을 주는 교회로 세워지길 소망하며,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을 근거로 '화목교회'로 정하였다 한다. 참으로 의미있는 이름이 아닐 수 없다. 화목교회는 춘천성심병원 앞 2층 62평의 건물을 임대, 건강하게 성장하게 된다. 그러나 그 후 건물주의 급박한 임대료 상승 요구로 인해 교회 이전문제를 놓고 온 교우들이 40일 아침 금식기도회에 들입하게 되었다. 하나님의 기도응답으로 1990년 3월, 만천리에 현 600평 교회 부지를 마련하게 된다. 그러나 기쁨도 잠시, 진입도로 문제로 건축허가가 나지 않아 천막 예배를 드리기도 하였으며, 임시로 이전한 후평등 지하 교회는 장마로 인한 배수문제로 큰 고통을 겪기도 하였다.

그러나 믿음의 목사와 온 교우들의 끈질긴 기도는 마침내 결실을 보게 된다. 만천리 부지의 형질변경문제를 놓고 느헤미야 4장 6절 말씀을 붙잡고 오랜 기도회를 가진 끝에 마침내 건축허가를 통보를 받게 된다.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락되고 고가 절반에 미쳤으니 이는 백성이 마음 들여 역사하였음이니라"(느4:6) 1993년 12월에 예배당, 사택, 선교원이 들어간 현 건물을 완공, 입당 감사예배를 드리게 되었던 것이다.



화목교회의 철학

화목교회는 가정교회를 지향한다. 문 목사는 휴스턴 가정교회 세미나를 참여한 이후, 화목교회를 가정교회 형태로 바꾸었다. 주일 대예배는 어린이들과 성인들이 가족적인 분위기에서 함께 드리진다. 온 교우들은 「메일성경」(성서유니온)을 의무적으로 묵상하고 있으며, 목장모임으로 모여지는 구역예배는 메일 묵상한 말씀을 가지고 온 교우들이 함께 자신의 삶에 적용하는 훈련을 하게 된다. 이를 통해 건강한 가정교회와 평신도 리더들이 세워지는 것이다. 가정교회가 약해지기 쉬운 강력한 제자도를 위해 화목교회에서 실시되는 제자훈련 프로그램은 체계적이고 다체롭다. 새가족반, 생명의 삶, 평신도 제자훈련, 사역훈련이 이어진다. 이러한 훈련을 통해 그리스도의 제자로, 주님을 대신하는 평신도 사역자로 거듭나게 되는 것이다.



화목교회와 선교

지역 아동의 영혼구원과 바람직한 성장에 대한 관심으로 1987년 3월에 화목 선교원(이후 어린이집)이 설립된 이후로 지금까지 교회사역에 있어서 어린이 선교는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문충식 목사와 김영희 사모는 일찍이 지역 문화와 선교에 관심을 갖고, 아동들의 영혼구원과 올바른 성장에 기여를 하고자 당시로선 거의 유일하게 어린이 선교원 사역을 시작하였다. 독일, 스위스 등지에서 10여 년을 간호사로, 교육자로 사역하던 김영희 사모는 귀국 후 문 목사와 결혼, 함께 어린이 사역에 전폭적으로 헌신하게 된다. 이후 독일 발도르프 교육법을 병행, 접목시켜 운영되는 화목 어린이집은 춘천뿐만이 아니라 전국적으로도 매우 우수한 사례로 소개되고 있다.

또한 화목교회는 창립 초기부터 해외 선교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 왔다. 1986년 서천석 선교사(필리핀), 임한곤 선교사(파라과이), 김지영 선교사(탄자니아)와 협력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박 천민 선교사(사우디아라비아), 박상배 선교사(인도네시아, 배종원 선교사(태국), 배정양 선교사(알바니아), 육대주 선교사(미얀마)를 후원하여 왔다. 국내 선교사역에도 힘을 기울여 어린이전도협회, 한국대학생선교회, 해외협력선교회, 인터서브, 강원 밀알선교단, 봄내 호스피스, GBT 등을 후원하여 왔다.

이번 성탄절에 화목교회는 "하우스 콘서트"를 진행하였다. 하우스 콘서트는 어린이들뿐만이 아니라 어린이와 학부모, 온 가족이 함께 하는 문화선교 참여 프로그램이다. 이 또한 '가정의 회복, 하나님이 창조하신 아름다운 문화의 회복운동'이라고 문 목사는 힘주어 말한다.

현재 장로교연합회 부회장과 GBT 부이사장으로 섬기고 있는 문충식 목사는 정직한 목회를 추구하는 사역자로도 잘 알려져 있다. 그리스도를 닮아가기에 날마다 노력하는 문 목사, 그리고 20년을 묵묵히 문 목사를 지지하며 섬겨온 김영희 사모와 화목교회 식구들. 진정 화목교회는 하늘과 땅의 다리를 놓는 아름다운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것이다.

[취재 최상도, 사진 김미경]



수준높은 시설과 환경 그리고 차별화된 교육을 자랑하는
관인 이화유치원
☎ 033)255-0164
원 아 모 집
1. 흉내 낼 수 없는 최고의 교육적 환경-유치원 자체가 친환경적(정원, 연못, 잔디운동장, 놀이터, 수영장, 닭장)
2. 고급스러운 실내 분위기(자동문/대형에어컨/내부시설 등)
3. 차별화된 교육 프로젝트(영어/한문/주산/웅변/아동미술/발레/가베/장구와 리코더/피아노/바이올린)
이화유치원은 정말 춘천에서 가장 훌륭한 교육시설과 환경을 갖춘 아름다운 유치원입니다. 교육은 차별화된 교육 프로그램으로 학부모님을 만족시켜 드릴 것입니다.
후문에서 본 모습
※위치 : 춘천시 퇴계동 916-2(남부초등학교 앞)

SSO TOTAL DESIGN
쏘인테리어
교회건축연구소
대표 권승갑 장로(제일장로교회)
033-242-5573 / 018-330-0433
1 OFFICE : 춘천시 퇴계동 891-1 대원B/D 7F
2 OFFICE : 춘천시 효자3동 607-2
STUDIO : 춘천시 서면 당림 1리 81-5

소개합니다

기아대책 춘천지회 창립

○ 춘천지회 창립예배 및 행복한 홈스쿨 개소식

기아대책 춘천지회(지회장: 원종국목사)는 2005년 12월 7일 춘천제일감리교회에서 창립예배 및 행복한 홈스쿨 개소식을 하였다. 이날 춘천지역의 여러 목회자들과 평신도 지도자들이 모여서 창립하고 빵과 복음을 함께 전하는 일과 교회연합에 앞장서기로 다짐하였다.

"행복한 홈스쿨"은 기아대책과 춘천제일감리교회가 협력하여 하는 사업으로 지역아동센터로 시청에 정식등록이 된 아동복지사업이다. 춘천제일교회 교육관 1층에서 방과 후에 돌봄이 필요한 아이들에게 숙제지도와 영어, 한자교육, 미술활동, 체육활동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학기 중에는 석식, 방학 중에는 중식을 제공하게 된다(교육비와 식비는 일체 무료이다).

현재 춘천제일감리교회에서만 운영을 하고 있는 행복한 홈스쿨이 앞으로 다른 교회들에게도 확산되기를 기대해본다.





○ 춘천지회 구성

기아대책 춘천지회는 고문 김창수 감독(신성감리교회)과 김주환 목사(순복음춘천교회), 지회장 원종국 목사(춘천제일감리교회), 총무 유호선 목사(동춘천감리교회)를 비롯해 목회자와 평신도지도자들로 구성된 약 20명의 이사들이 함께 활동하고 있다.

○ 기아대책본부

기아대책은 1971년 설립된 UN 공인의 국제 선교, 구호단체이며, 한국에는 1989년 최초의 해외지원단체로 설립되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긴급구호와 개발사업을 통해 국내외 가난하고 굶주린 이웃들의 생존과 자립기반을 마련해주고 있다. 현재 세계 40여 개국을 돕고 있으며, 국내에는 40개의 지회가 있다.

○ 기아대책 지역본부 구성

가. 기아대책 지역조직

1) 전국 조직 현황 -지역본부: 12본부 / 지역회: 31지역회

2) 지역본부: 광역시, 도 단위 구성 지역 사무국 기능/ 각 지역회 사업 활성화 지원

3) 지역회: 시 단위의 이사회 조직

나. 본부 지원부서 : 국내사업본부(대회협력부/복지사업부)

○ 지역본부 주요 사업

* 후원개발사업

1) 대외 홍보활동 : 지자체, 교육, 언론 등

2) 선교예배 : 교회, 단체, 기관 등 설명회

3) 사랑의 밥그릇: 학교, 교회, 어린이집

4) 지역회 조직사업: 이사회, 자원봉사, 후원회

5) 각종 이벤트: 달리기, 음악회, 바자회, 사진전 등

* 사회복지사업

1) 아동결연 복지사업: 국내외 후원자/아동개발(1:1후원)

2) 지역아동센터: 행복한 홈스쿨 등 각종 프로그램 운영

3) 지역 복지관 위탁: 노인, 장애인, 어린이집 등 복지관 수탁

[기아대책 춘천지회 ☎ 033)254-6401]

영혼의 양식

오병이어의 섬김

요한복음 6장 1~13절



하 기 철 목사(순복음제일교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늘 기적의 삶을 살기 원하십니다. 여기 요한복음 6장 1-13절에서도 예수님께서는 광야에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여자와 어린 아이를 빼고 오천 명이나 되는 장정들을 먹이고도 열 두 광주리를 남기시는 기적을 행하시기까지 섬긴 자들과 기적을 행하시고 난 후 그 수많은 군중이 잘 먹고 돌아갈 수 있도록 섬긴 자들의 삶을 살펴보고, 그들의 섬김을 우리의 삶에도 적용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1. 섬김은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빌립을 시험코자 물으십니다. 많은 무리를 어떻게 먹일까? 빌립은 무리를 먹이기 위해 필요한 액수를 계산하고 이백 데나리온의 부족함을 이야기 합니다. 빌립은 순간 자신이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자 자신의 생각과 판단에 충실하게 됩니다. 자신의 생각과 판단은 우리의 눈을 가립니다. 섬김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섬김은 생각과 판단이 아닙니다. 섬김은 본능입니다. 사람이 시간이 되면 아침과 점심과 저녁을 먹듯이 섬김은 당연히 믿는 크리스천들이 해야 할 의무인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을 따른 무리 역시 그리고 오늘날 우리 주변의 이웃 역시 우리가 섬겨야 할 대상인 것입니다.

2. 섬김은 헌신이 있어야 합니다.

안드레는 주님이 말씀하시자 행하는 실천의 헌신자였습니다. 그 많은 군중 가운데 어린아이가 안드레 옆에 있었겠습니까?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하면 주님이 기적을 행하실 수 있을까?하며 헌신하는 자였습니다. 그래서 안드레는 어린아이를 찾았으며, 기적의 시작과 섬김을 할 수 있게 만든 자였습니다. 우리에게는 헌신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헌신, 이웃에 대한 헌신 이것이 많은 영혼을 배불리 하는 길임을 알아야 합니다.

3. 섬김은 자신의 희생이 있어야 합니다.

어린 아이는 자신의 귀중한 양식을 내어놓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몹시 배고픈 상황이었음에도 어린아이는 자신의 배를 채우지 않고 모든 것을 내어 놓는 모습을 통해 진정한 섬김은 희생에서 나오며 그 희생은 많은 무리가 배불리 먹게 되는 큰 기적을 가져오게 됨을 보게 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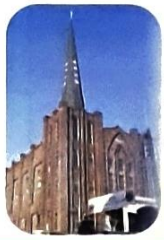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인자의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막 10:45, 마 20:28) 예수님의 섬김과 희생은 우리를 살렸습니다. 예수님의 기적이 날마다 일어나길 원하십니까? 내 자신을 희생 하십시오. 그리고 섬기십시오. 그러면 오늘 우리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앤투어 ntours

- 할인 항공권 전문
- 전세계 호텔 예약
- 여권 및 비자 업무
- 국내 · 외 여행 일선 (수학 · 졸업 여행)
- 배낭여행 · 어학연수
- 전세 버스 일선
- 신혼여행
- 유로패스/JR패스 예약 및 발권
- 해외선교 후원

대표 김지현 집사(춘천중부 교회) (011-9057-3946)
TEL:244-7400 도청 밑에 위치

대한예수교장로회 춘천교회



은혜와 기쁨이 충만한 교회
교육(양육)이 살아있는 교회
전도와 선교에 힘쓰는 교회
사랑과 섬김이 넘치는 교회

담임목사 지 태 성

☎ 033-257-2113

기독교대한성결교회 새순교회

- 성령 충만
- 섬김
- 재생산
- 선교와 바른 삶
- 성시화와 북한선교에 힘쓰는 교회

담임목사 김 현 곤

☎ 033-264-0291

선교를 향한 열정

이번 기독기업체 탐방은 장삼원 이진배 장로(성광교회)편입니다



선교하기 어려운 대상

이 장로의 집안에서 처음 주님을 믿게 된 사람은 누님이었다. 누님은 어머니에게 모진 핍박을 받으면서 신앙생활을 했다. 여러번 머리를 깎이면서도 믿음을 지키며 기도한 결과 어머니의 마음이 변하는 기회를 맞게 된다. 누님을 모질게 핍박하던 어머니는 40대에 들어서면서 여러 차례 수술을 받으셨고, 43살에 후두암으로 인해 돌아가신다는 말을 듣게 되었다. 또 무속인으로부터 57세가 되면 염라대왕이 오라고 할 것이라는 소리도 들으셨다. 질병으로 인해 고통을 당하던 어머니는 47세가 된 어느날 새벽종소리에 끌려 교회에 나가게 되셨다. 마침 그때 새벽부흥회가 열리고 있었는데 이때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 누님의 오랜 기도가 응답되던 날이었다. 어머니는 57세는 물론 훔쩍 넘기셨으며 현재 82세의 나이로 건강하게 살고 계시다.

주님을 믿으며 은혜를 경험한 어머니는 이 장로에게도 예수님 믿기를 권유하셨다. 이 장로는 어려서 무척 어머니를 속썩였던 인물이다. 이 장로가 초등학생 때 예수님을 믿는 친구들이 예수 믿으라고 권유할 수 없었을 정도로 억셌다고 한다. 그는 배구선수로 활동했으며 태권도를 익힐 정도로 운동에 소질이 있었다. 그로 인해 싸움에 휩쓸리기도 많이 했다. 이 장로 때문에 학교에 다니기 싫어하는 사람이 있을 정도였단다. 그렇게 어머니를 속썩였던 이 장로는 그냥 효도하는 마음으로 교회에 나가게 된다. 물론 당시 이 장로의 상황이 나빴던 까닭도 있다. 군 제대 후, 제약회사에 들어가 영업을 해서 많은 돈을 벌었지만 선배들과 어울리면서 보증 등 여러 가지 곤란한 일을 겪게 되었다. 그래서 어머니의 권유도 있고 하니 혹시나 하는 심정으로 교회에 나가게 된 것이라고 한다.

선교에 눈뜨기까지

이 장로는 "선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영혼을 구원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입니다"라고 말한다. 그가 이렇게 생각하기까지 수많은 신앙여정을 거쳤다. 31세에 어머니의 권유로 처음 면목등의 한 교회에 나가게 된 이 장로. 어머니의 경우처럼 새벽기도회부터 참석하게 되었다. 주님께서 이 장로를 붙드시기 위해 처음 나간 새벽기도회부터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게 하셨다. 성령의 힘에 압도당해 그의 입에서는 회개가 터져 나왔고 하나님 만나기를 간절히 소원하게 되었다.

신앙이 성장해 가면서 이 장로가 하고 있던 화공약품 공장도 인천 남동공단으로 공장을 옮길 정도로 성장하였다. 그러나 노태우 대통령 시절 부도가 나게 된다. 이 장로는 당시 자신은 부도가 절대 날 수 없는 인물이라고 생각했단다. 일주일에 열두번이나 예배를 드리고, 일년에 40일 철야를 두 번씩이나 하며, 교회 재정의 1/3을 담당하는 등 반듯한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도저히 부도 날래야 날 수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한 것이다. 하지만 부도의 경험을 통해서 그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자신의 선행이 아니라 주님 앞에 탕자처럼 산 자신의 죄인됨을 고백하고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것임을 깨닫았다. 때로 어떤 이들은 이 장로에게 부도도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니까 목회자가 되라고 권유하기도 했으나 그는 기도 중에 장로로서 목회자를 섬기며 돕는 봉역자가 되는 것이 주의 뜻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 실제로 그는 현재 성광장로교회 장로로 섬기고 있다.

기도원에서 힘을 얻은 그는 1993년부터 처가댁이 있는 춘천에 와서 살게 된다. 이 장로는 당시 할 일이 없어서 산에 다니면서 벰을 잡고, 더덕을 캐며 생활했다고 한다. 그러나, 수배대상이었던 그는 기도원에서 나온지 6개월 만에 경찰에 잡히는 몸이 되었다. 이 때 그는 하나님께 '잡히게 하실 양이면 진작 잡히게 하시지 왜 사업을 준비하고 있는 지금에서야 잡히게 하시느냐' 고 원망을 했다고 한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장로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채권자들과 원만하게 합의하도록 역사하셨다.

산으로 들아다니며 벰과 더덕을 팔며 생활한 지 2년 만에 그는 '미니미니 김밥'이라는 김밥집을 시작하게 되었다.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경제적으로 여유롭기 시작했다.

선교에 헌신하는 자를 주님께서 지키신다

이 장로가 선교에 관심을 갖게 된 것은 인천 안디옥교회의 안철호 목사를 통해서이다. 그가 다니던 교회의 전도사였던 안 목사는 함께 산 기도를 다니면서 선교에 대한 비전을 불어 넣었다. 이 장로는 자신과 같은 탕자를 받아주신 주님을 전하고 싶은 열망이 생겼고, 특히 중국선교에 대한 마음이 들었다. 처음에는 물질로만 중국선교를 도왔으나 직접 가서 전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여 1996년부터 중국에 가기 시작해 2001년부터는 여러 등역자와 힘을 합해서 교회를 세우기 시작했다. 그는 현재 중국의 단등지역에서 정식으로 교회를 할 수 있는 허가증을 가지고 있다.

그는 또한 선교의 의미를 명확하게 알기 위해서 MP(mission perspectives) 훈련을 받게 된다. 그는 이 훈련을 통하여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영원 전 부터의 한 가지 목적, 즉 모든 열방이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복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을 이해하게 되었다. 선교의 의미를 분명히 알게 된 이 장로는 MP훈련을 통해 받은 은혜를 주변 사람들을 부추기면서 선교에 동참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이렇게 선교를 하던 이 장로에게 또 한 번의 시련이 찾아왔다. 2003년 원인도 모르게 몸이 아파온 것이다. 한달동안 고통에 시달리던 그는 고통을 견디기 위해 날마다 찬양과 기도에 힘썼다. 원인을 알 수 없는 질병. 한 병원에서는 수술하자고 하였으나 이미 자신의 장기를 기증하기로 약속했던 터라 이 장로는 온전한 몸을 기증하고 싶어서 수술을 피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온전히 헌신하고자 하는 그의 신실함을 보셨나보다. 그때부터 그의 몸은 회복되기 시작했으며 건강을 되찾게 되었다. 자신의 건강을 되찾게 해주신 주님을 선교하는 데에는 김밥집으로는 한계가 있는 것 같아 그는 2003년 현재의 장삼원을 개업하게 되었다.

2006년 새해를 향한 그의 꿈은 두 사람이 힘을 합쳐 한 선교사님을 온전히 파송하는 것이다. 이 장로는 자신의 삶을 선교하는 일에 드리며 사는 것이 진정한 복을 가져다줬다고 말한다. 하나님께서는 선교하는 자신을 들어주셔서 전국적으로 활동하게 하셨으며, 자녀들의 삶도 지신이 염려할 필요가 없도록 책임져 주셨다고 고백한다. 이 장로의 장래 비전은 60살에 선교사로 나가는 것이다. 노후를 열방에 주님의 복음을 전하면서 보내는 것이 참된 복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선교에 몰두한 사람, 그것이 장삼원 사장 이 장로의 모습이었다.

[취재 권기찬, 사진 김미경]



어머니와 딸 세대가 함께 하는

제시뉴욕 · 레모네이드 춘천점



연예인과 함께하는 제시뉴욕

가죽·모피·에복전문

대표 전 순 천

위치 : 조양동 조흥은행본점 앞 ☎ 252-7262

장뇌삼과 각종 한약재를 첨가한! 웰빙 삼계탕!

웰빙 삼계탕 장 삼 원

귀한 분을 모신다면 장삼원으로 오십시오!
건강을 생각한 혼(魂)이 담긴 삼계탕, 정성을 다하여 모시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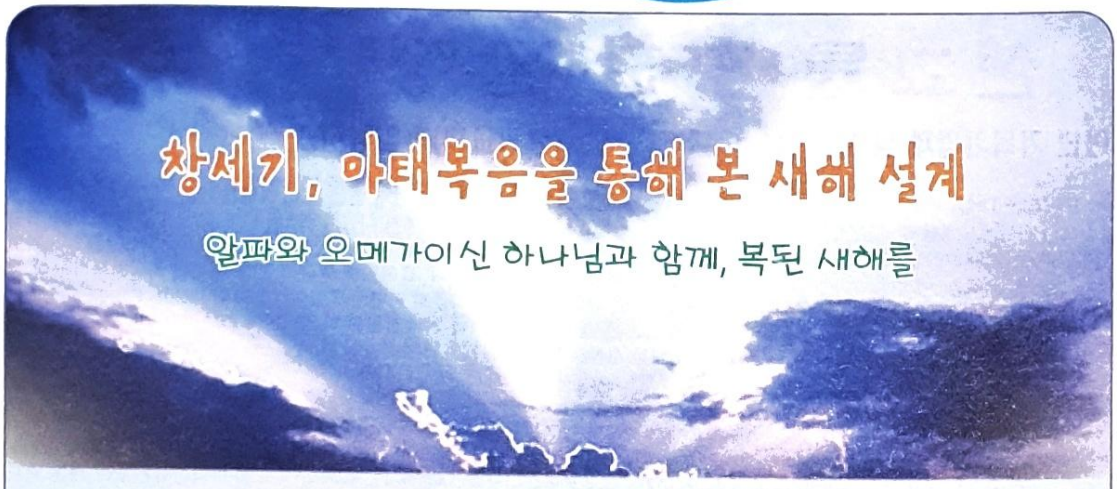


◆ 메 뉴
장뇌삼 삼계탕 · 한방 삼계탕 · 닭도리탕 · 한방백숙

※ 대형주차시설 완비
※ 각종모임을 위한 단체 연회석 완비

춘천시 후평동 시내버스 종점에서 소양댐방향 500m지점

예약문의 (033)254-9191 · 9199



창세기, 마태복음을 통해 본 새해 설계

알파와 오메가이신 하나님과 함께, 복된 새해를

'창세기'란 "세상이 창조된 기록"이란 뜻입니다. 모세의 첫 번째 책이 처음에 히브리인들(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주어졌을 때의 책 이름은 히브리어로 '베레쉬트'(Bere'shiyt)였습니다. 그 뜻은 "시작하면서"(In the beginning)로서, 창세기 1장 1절의 첫 문구인 "시작하면서"(In the beginning)가 그대로 책 제목이 된 셈입니다. 성경의 첫 번째 책의 영어표기인 '제네시스'(Genesis)는 마태복음 1장 1절의 그리스어 '게네시스'에 근거하여 구 라틴어 성경에 따라 제목 표기를 한 것이었습니다. 히브리어 베레쉬트를 굳이 그리스어 게네시스와 일치시켜서 라틴어 게네시(게네세오스)로 번역하고, 또 다시 영어 성경에서 'Genesis'(제네시스)로 번역하게 된 것은, 성경의 첫 언급이 신약의 첫 언급을 가리키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즉 첫 창조를 "시작하면서"(In the beginning, 베레쉬트) 이미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생성된 세대"(generation, 게네시스)를 가리키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첫 창조를 시작하신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의 '게네시스'를 얻고자 한 것이었음을 암시합니다. 즉, 구약의 첫 언급과 신약의 첫 언급은 짝을 이루면서,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 목적을 이해하는 아주 중요한 단서를 제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예는 고린도후서 4장 6절은 창세기(제네시스) 1장 3, 4절의 사건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적용하고 있는데, 문자적으로 첫 창조의 사건을 그대로 인정하면서,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는 새 창조의 사건을 가리키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곧 빛에게 명령하셔서 어두움에서 나와 빛을 비추도록 하신 그분께서, 우리 마음에 빛을 비추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주시려 함입니다"*(고후4:6). 마찬가지로, 구약성경의 첫 언급인 '제네시스'(Genesis) 역시 신약성경의 첫 언급인 예수 그리스도의 게네시스와 짝을 이루면서 문자 그대로의 청사진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 청사진은 첫 창조에서 새 창조에 이르는 전 과정에 대한 청사진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시간'(time)의 역할입니다. 첫 창조도 말씀으로 성취되었듯이, 새 창조도 말씀으로 성취될 것입니다. 알파에서 오메가까지의 말씀은 시간 안에서 시작하고 끝마침으로써 하나님의 두 단계 창조를 온전히 성취할 것입니다.

이제 2006년이라는 새해라는 시간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그 시간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가기를 결심해야 합니다. 말씀에 복종하지 않는 것이 죄이고 그 죄된 시간은 허비한 것입니다. 영생을 사는 시간으로 돌려야 합니다.

"그럴찌라도 저희가 오히려 범죄하여 그의 기사를 믿지 아니하였으므로 하나님이 저희 날을 헛되이 보내게 하시며 저희 해를 두렵게 지내게 하셨도다."(시78:32-33)

그러므로 우리는 새해를 말씀을 경청하며 귀를 기울이는 생으로 살아야 합니다.

"저희로 그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의 행사를 잊지 아니하고 오직 그 계명을 지켜서 그 열조 곧 완고하고 패역하여 그 마음이 정직하지 못하며 그 심령은 하나님께 충성치 아니한 세대와 같지 않게 하려 하심이로다."(시78:7-8)

마음이 정직하며 심령이 하나님께 충성된 삶으로 살기로 뜻을 정합시다.

바울의 기도문이 생각납니다.

"내가 이것을 기도하노니, 곧 너희의 사랑이 지식과 모든 판단으로 더욱더 풍성해지게 하사 너희가 뛰어난 것들을 입증하며, 또 그리스도의 날까지 신실하고 거리낌이 없게 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들로 가득 채워져 하나님의 영광과 찬양이 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빌1:9-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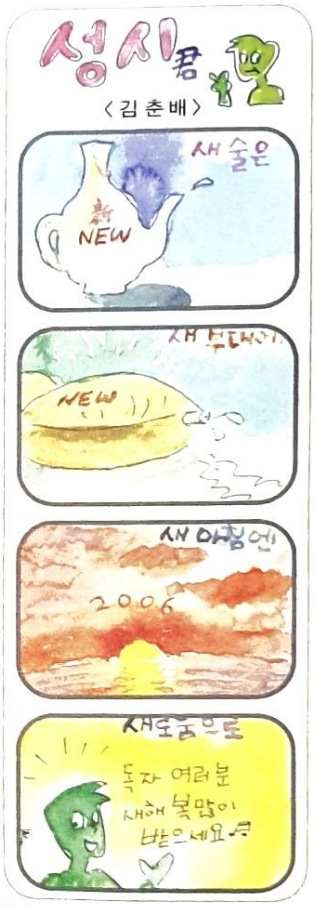
독자들에게 바라는 나의 기도문이기도 합니다.

영생을 취하는 삶은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입니다. 한 권의 책만 읽은 사람이 제일 무서운 사람이라고 말하지만 성경, 이 한 권외에 그 이편 책이라도 위험헌니다. 주님을 알고 동행한지 언제인데 아직도 모르십니까? 하나님은 침되시지만 사람은 다 거짓말쟁이라는 사실을(롬3:4)? 아직도 모르십니까? 세상의 행위들을 악하다고 예수님은 증거하셨고(요7:7), 진리이신 그분을 죽인 세상 지혜를....

참되며 선한 증거인 그 한 권의 책인 하나님의 말씀을 소리 내어 성경을 읽으십시오. 그러면서 정직하고 선한 마음으로 말씀을 들으십시오. 우리의 몸을 의에게 종으로 드려 거룩함에 이르게 하십시오.

새해의 시간을 영생의 시간으로 돌리는 것이 우리에게 새해가 주어진 이유입니다.

알파와 오메가시며 처음과 마지막이신 주 예수님 안에서의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계획하시기 바랍니다. [편집부 이영규]



예 향

온 몸이 다 아픈 이유

어떤 남자가 의사와 면담하면서 이렇게 말하였다. "선생님, 요즘 와서 만지는 곳마다 다 아픈 것 같습니다. 늙어가는 건가요? 무릎을 누르면 무릎이 아프고, 배를 누르면 배가 아픕니다. 종아리를 누르면 종아리도 아프고 도대체 무엇 때문일까요?" 의사도 고개를 갸우뚱하며 말한다. "그래요. 엑스레이를 찍어봅시다." 한참 시간이 지나서 엑스레이 결과를 가지고 의사가 돌아왔다. 그리고 환자를 붙들고 서다보면서 말한다. "왜 만지는 곳마다 아픈지 그 이유를 알 것 같습니다." "왜 만지는 곳마다 아픕니까?" 환자가 마음을 졸이면서 물었다. 의사가 엑스레이 사진을 가리키면서 말했다. "몸에는 아무 이상이 없는데 손가락이 부러져 있군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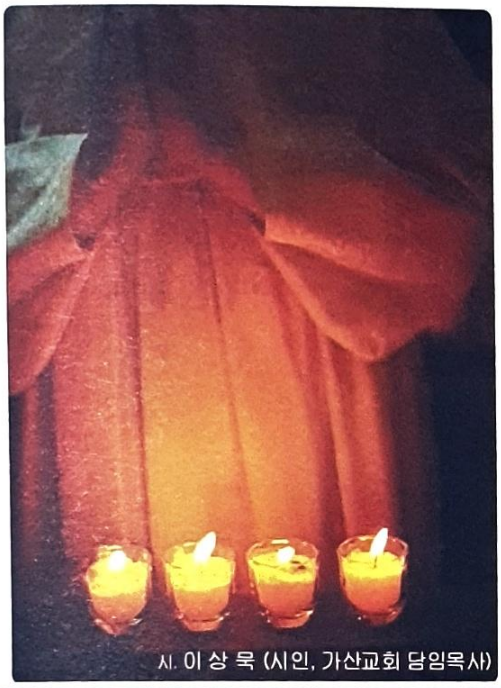
그렇다. 우리는 흔히 문제의 원인을 다른 사람이나 환경에서 찾고자 한다. 그러나 많은 경우 문제는 나 자신에게 있는 것이다.

춘천에서 전국으로, 세계로...
예수향기를!!
교회현수막 전문
www.chunill.com
1001design@hanmail.net
"천일디자인"만 쳐도 됩니다.
천일기획(디자인)
T.255-5722 F.256-5722



포·토·에·세·이

새해의 기원



시. 이 상 묵 (시인, 가산교회 담임목사)

새 달력의 첫장을 열면
꽃들의 향기로
새들의 지저귐으로
출발의 아침은 밝기만 합니다.

1년 365일
52주간
하루같이 강건하게
뿌리깊이 내린 나무들처럼
의연하고 꿋꿋한 기상을 배우며

미움의 줄을 끊고
사랑의 줄로 매이게 하소서
절망의 줄을 끊고
희망의 줄로 매이게 하소서
의심의 줄을 끊고
믿음의 줄로 매이게 하소서

말씀의 우물가에서
기도의 두레박을 길어올리면
은혜의 빛다발로 새로운 나날들

무수한 꽃들의 향기처럼
명랑한 새들의 노래처럼.....

삶의 여유

신년에 가볼만한 곳 - 예 수 원

병술년 새해가 시작되었다. 바쁘고 분주한 일을 뒤로하고 먼저 하나님과 나만의 조용한 시간을 갖는 것을 권하고 싶다. 춘천 근교에는 좋은 기도원이나 수양관들이 많이 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캠프나 세미나가 준비되어 있다. 이중에 하나를 선택하여 참여하는 것은 어떨까? 시간이 허락된다면 2박 3일간 예수원으로 기도여행을 떠나보는 것도 좋을 듯하다.



예수원은 대천덕 신부님 가족과 성미가엘 신학교 학생들, 그리고 한동교회 신자들과 건축노동자로서 함께 일하던 형제 자매들에 의해 1965년에 태백에 설립되었다.

예수원의 기본일과는 "노동이 기도요, 기도가 노동이다"라는 성(聖)베네딕 수사장의 가르침에 근거하여, 하루 세 차례 예배와 노동을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예수원을 방문한 손님들은 예배는 의무적으로 참석하셔야 하며, 본인의 의사에 따라 노동에 동참할 수 있다. 참고로 예수원에서는 금식(禁食)을 할 수 없다.

예수원에서는 하루 세 차례 삼종(三鐘)이 있다. 삼종이 시작되면 하던 일을 멈추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침묵으로 기도를 드려야 한다. 삼종은 매일 아침 6시, 정오 12시, 저녁 6시에 있으며, 예수원의 중요한 일과이므로 반드시 따라한다.

예수원에서는 특별히 침묵을 지켜야 하는 시간이 있다. 소침묵(小沈默) 시간인 밤 9시부터 10시까지는 작은 목소리로 필요한 말씀만 할 수 있고, 대침묵(大沈默) 시간인 밤 10시부터 다음날 아침 예배 전까지는 온전한 침묵 가운데 안식하시거나 하나님과만 대화하는 시간이다. 아울러 점심식사 직후인 매일 오후 1시부터 2시까지는 개인대도를 위한 침묵시간이다.

예수원은 매년 1만 여명의 손님들이 다녀가는 관계로 사전예약이 필수이다. 방학기간인 경우는 최소 한 달 전까지, 방학기간이 아닐 경우는 최소한 1주전에 전화로 예약을 해야 희망하는 날짜에 방문할 수 있다. 방문은 2박 3일이며 토요일과 주일에는 손님을 받지 않고 있다(1박 2일 손님도 받지 않고 있다. 꼭 1박 2일로 다녀오기 원하면 금요일에만 1박 2일로 다녀올 수 있다).

가는 방법

1) 자가용으로

춘천 → 남원주 → 중앙고속도로(원주-제천간) → 제천 → 영월 → 상동 → 태백 → 태백시내 통과 후 하장 방면으로 진입 → 피재고개(이기는 예수원 목장이다. 예수원은 더 가야 한다) → 피재에서 약 15-20분 진행 → 우측에 예수원 → 산길을 따라 약 1km → 마당에 주차하고 돌계단으로 올라와 오른쪽 첫번째 방으로 가면된다)

2) 버스 이용시

태백가는 버스를 타고 태백터미널까지 간다. 태백시외버스터미널에서 하장행 완행버스를 탄다.(예수원이라고 말하면 됨. 하사미까지 약 25~30분 소요)

예수원 입구에 내려서 마을길을 따라 1km 정도(약 15-20분) 올라가면 예수원이다.

[편집부 최영조]

행사안내

강원도아동학대예방센터

♣ 아동- "우리 아이 정서지수 키우기"

1. 행복한 책읽기·신나는 글쓰기(강사:허님정)
   - 기간: 2006. 1월 6일(금)부터 매주 금요일 12주 동안
   - 대상: 초등학교 1-3학년
   - 인원: 10명

2. 공부 즐기기 (강사:신정원)
   - 기간: 2006. 1월 10일(화)부터 매주 화,금 10주 동안
   - 대상: 중학교 1-2학년
   - 인원: 10명

3. 내가 하고 싶은 것 함께 찾아가기 (강사 : 모의희)
   - 기간,대상,인원: 개별 예약

4. 엄마와 아이와의 미술놀이 (강사 : 이창희)
   - 기간: 2006. 1월 14일(토)부터 매주 토요일 4주 동안
   - 대상: 초등학교 1-6학년
   - 인원: 5가정

♣ 부모- "아동양육 방법 배우기"

1. APT교육(적극적 부모역할 훈련, 강사:모의희)
   - 기간: 2006. 1월 18일(수)~2월 8일(수) 총16시간
   - 대상: 부모
   - 인원: 12명
   - 문의: 국번없이 1391

월드비전

♣ 아동방학교실

1. 일시: 2006년 1월 4일~2월 10일
2. 장소: 방과후교실
3. 참가인원: 70명
4. 내용: 학습지도, 인성교육, 야외활동 등

♣ 무료진료

1. 일시: 2006년 1월 16일(월)
2. 장소: 월드비전 3층 강당
3. 인원: 50명
4. 주최: 강원도재활병원, 월드비전춘천종합사회복지관

♣ 자원봉사자 리더회모임

1. 일시: 2006년 1월 24일(화)
2. 장소: 1층 자원봉사자실
3. 참석예상인원: 10명
4. 문의: (033)254-7244

사랑에 빚
월드비전 World Vision
강원지부
춘천종합사회복지관
www.gangwon.worldvision.or.kr
강원 춘천시 효자1동 373-90
·한사랑(1만원)·배사랑(2만원)·늘사랑(3만원)
월드비전 후원계좌: 농 협 240-01-078120
☎ 254-7244 조 흥 515-01-038052
우체국 210022-01-001922
예금주 월드비전

인류 평화의 비전을 키우는 아가피아 스쿨

■ 문의 지부장 김성호 목사 : 011-372-9100
간사 이은미 : 011-9058-3711

교회가 가지고 귀하고 아름다운 자원을 주일학교(SUNDAY SCHOOL-영성교육)에만 국한 시키겠습니까? 아니면 교회학교(CHURCH SCHOOL-전인교육)로 발전시키겠습니까? 교회가 대한민국의 교육을 주도할 때가 되었습니다. 교회가 할 수 있는 충분한 여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잘 훈련되고 실력이 있는 교사만 준비되면 여기 그것을 가능케 하는 시스템과 훈련과정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아가피아 꿈의 학교(DREAM SCHOOL) 교사 과정
강원 1기 : 2006년 1월 23일(월) ~ 26일(목)
매일 오전 9시-오후 6시, 4일간
강원 2기 : 2006년 2월 6일(월) ~ 9일(목)
매일 오전 9시-오후 6시, 4일간
베드로선교센타 5층 추수홀(구 베드로정형외과)
등록비 200,000원(개강 1주일 전까지 등록완료 요함)

참가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한 1일 공개 세미나
1차 : 2006년 1월 9일(월) 오후 2시-5시(주간반)
오후 7시-10(야간반)
2차 : 2006년 1월 16일(월) 오후 2시-5시(주간반)
오후 7시-10(야간반)
장소: 베드로 선교 센타 5층 추수 홀

특별이벤트 고등학생을 위한 논술 및 효과적인 학습방법 강좌
일시 : 2006년 2월 20일(월) ~ 23일(목)
매일 오전 9시-오후 6시까지
장소 : 베드로 선교 센타 5층 추수 홀
등록비 : 200,000원(개강 2주일 전까지 등록 완료 요망)

▶아가피아스쿨은 <하나님의 인재를 길러내기 위한 학교>, <사랑을 배우는 학교>, <비전 이 있는 학교>, <인류유산이 있는 학교>입니다.
▶아가피아 학습은 전인적인 인재와 리더를 양성하기 위한 교육철학이자 학습방법입니다. 체성, 감성, 지성, 관계성, 전문성, 지도성, 영성 등 7가지의 구성 요소를 기초로 인격과 비전, 그리고 실력을 갖춘 전인적 인재개발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장로교연합회 총회



한국장로교연합회 춘천지회(회장 김유식목사)는 12월 7일(수) 오전11시 회목교회에서 2005년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개회예배 후 총회에서는 회장 지용찬목사(은혜교회), 부회장 문종식목사(회복교회), 총무 지태성목사(춘천교회), 서기 정재호목사(늘사랑교회), 회계 김학구장로(동부교회) 가 각각 선출됐다.

♡기아대책본부 춘천지부 창립예배



12월 7일(수) 오전11시 춘천제일감리교회에서는 기아대책본부 춘천지회(지회장 원종국목사/제일감리교회) 창립예배 및 행복한 홈스쿨 개소식이 열렸다. 이날 원종국목사는 "빵과 복음을 함께 전하는 일과 교회연합에 앞장서겠다"고 다짐하였다. 행복한 홈스쿨은 기아대책과 춘천제일감리교회가 협력하여 하는 지역아동센터로 시청에 정식등록이 된 아동복지사업이다. 춘천제일교회 교육관 1층에서 방과 후에 돌봄이 필요한 아이들에게 숙제지도와 영어, 한자교육, 미술 체육활동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학기 중에는 석식, 방학 중에는 중식을 제공하게 된다.

♡연합회 임원수련회



춘천기독교연합회(회장 박상호목사) 임원회는 12월 8일(목)~9일(금) 강촌리조트에서 1박2일 수련회를 가졌다. 향후 2006년 사업 계획과 임원들의 단합과 친목을 도모하는 시간을 갖고, 춘천의 모든 교회들의 연합과 도시의 변화를 위해서 기도하였다.

♡ 군복음화 찬양대회



제13회 군복음화 찬양선교대회(주최 및 주관:찬양단)가 12월 10일(토) 오후5시 석사교회에서 열렸다. 이날 춘천인근 군부대 장병들로 구성된 10개의 찬양팀이 참가하여 뮤지컬, 워십댄싱 등 젊은 패기와 열정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축복된 시간을 가졌다. 전군신자화운동에 최첨병으로 서있는 주의 십자가 군병들의 늠름한 모습을 볼 수 있었다.

♡ 성탄트리점등식



온누리 평화의 불을 밝히는 성탄트리점등식(주최:춘천기독교연합회)이 12월 9일(목) 오후 7시30분 춘천 명동사거리 기업은행 앞에서 열렸다. 이날 류종수 춘천시장, 함종호 시의장을 비롯해 교계지도목사, 평신도지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이 땅에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념하며 불을 밝혔다. 그리고 제일장로교회 성가대가 캐럴 합창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온누리에 전했다. 메년 춘천기독교연합회가 설치하는 성탄트리는 내년 1월초까지 춘천을 밝힐 예정이다.

♡ 혁신도시선정 원천무효화 3회에 걸친 궐기대회



혁신도시가 불공정 선정 발표되며 그동안 여러 정책적 부재에 대한 것이 겹치면서 춘천시민들의 울분은 극에 달했다. 이에 기독교연합회장을 수석대표로 한 혁신도시 선정 원천무효 범시민대책위원회는 12월 12일(월), 22일(목), 30일(금) 등 연속적인 대규모 시민궐기대회를 일으키며 불공정한 혁신도시 선정 문제를 집중 거론 성토하였다.

12월에는 오후2시 시민 2만 여명이 참가하여 종합운동장에서 집회를 시작해 도청까지 이어지는 대규모 가두시위를 개최했다. 이날 류종수 춘천시장과 함종호 춘천시의장은 삭발을 거행하였고, 최인혁 춘천YMCA 전 이사장은 도청 앞에서 혈서를 쓰는 등 결연한 의지를 보였다. 또 선정위 4명의 희형식도 가졌다.

두 번째 집회도 영하10도의 혹한 추위 속에서 22일(목) 오후 4시 종합운동장에서 도청까지 혁신도시 재선정을 요구하는 시민들의 촛불시위가 열렸다. 범대위 수석상임대표 박상호목사(기독교연합회장)는 "불공정한 심사위원들의 상식을 초월한 채점에 의해 도둑맞은 혁신도시를 되찾아야 한다"며 "정부와 강원도지사는 즉각 선정 결과를 취소하고 진정한 도민통합을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하라"고 주장했다. 한편 일부 흥분한 시위대가 도청사 내에 촛불을 던지고 도청난입을 시도해 경찰과 몸싸움을 벌이기도 했다.

대책위는 연속적으로 김진선 도지사와의 면담을 통해 의견을 조율하려 했으나 춘천시민들의 요구가 완전히 묵살 당하자 셋째집회를 30일(금) 오후2시 시청광장과 도청광장에서 또 다시 시위를 하였다. 이날 도청은 계란세례로 수라장이 되었다.

♡ 성시화운동본부 총회



춘천성시화운동본부는 12월 16일(수) 오전 11시 춘천제일장로교회에서 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기독교연합회장 박상호목사가 성시운동본부의 본부장으로 추대되었고, 이어 2006년 사업 계획 추인과 신임임원들을 각각 선임했다.

♡ 구세군 시종식



자선모금운동의 대명사 구세군 '자선냄비'가 12월 14일 오전 10시30분 명동입구에서 시종식과 함께 성금모금을 시작했다. 이날 춘천기독교연합회장 박상호목사는 예배 축도 후 류종수 춘천시장, 함종호 춘천시의장 등과 함께 구세군 종을 흔들며 자선냄비에 온정이 가득 담겨 많은 소외된 이웃들을 돌아보게 되기를 기원하였다.

♡해비타트 이사장 이 · 취임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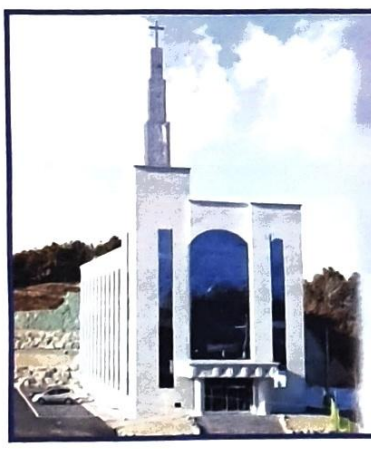


한국사랑의집짓기운동 춘천지회 이사장 이 · 취임식이 12월 16일(금) 오전 11시 신성감리교회에서 있었다. 이날 배계섭이사장(전 춘천시장)에 이어 김창수감독(신성감리교회)이 제2대 춘천지회 이사장으로 선임됐다. 김창수목사는 "집 없는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한 순수한 마음으로 사랑의 집짓기운동에 참여하기로 했다"며 많은 관심과 사랑을 부탁했다.

♡ 올리클럽 총회



춘천홀리클럽은 12월 28일(수) 오전 10시30분 석사감리교회에서 총회를 개최했다. 약 600여명의 평신도지도자들이 모인 가운데 김주환목사(순복음춘천교회)는 "홀리클럽이 춘천을 성시화 하는데 앞장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많은 일들을 하시길 바라며 홀리클럽의 발전을 기원한다"고 회원들을 격려했으며, 춘천기독교연합회장 박상호목사는 "홀리클럽을 통해 분열이 있는 곳에 화평과 화합이, 그리고 이 춘천을 하나 되게 하는 일들을 감당하시길 바란다"며 축복하였다. 이날 총회에서는 명예회장 조남진장로(순복음춘천), 회장 이학규장로(석사감리), 부회장 김태권장로(동부)/허종구장로(중앙성결)/이영식장로(중앙감리)/차혜자(YWCA회장), 사무국장 김영명장로(동신교회), 서기 강철주장로(창대감리), 회계 김기기장로(석사감리), 감사 장준홍장로(서부)와 마철규장로(제일장로)가 각각 선출되었다.



1200평의 대지 위에 연건평 580평의 성전을 지어서
입당하게 됨을 모든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감사드립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동신교회

당회장 이병서 목사
장 로 김금용, 조종태, 장대현, 김영명
교육전도사 신동주

강원도 춘천시 동면 만천리 902-12(구름다리 밑) 교회 033)256-6640, 목사관 253-6640

사 설

침묵이 아니라 고난을 함께 나누고 있을 뿐이다.

박 상 호 목사
본보편집장 춘천제일장로교회 담임

엔도 슈사쿠는 일본의 기독교 작가이다. 그의 작품에 「침묵」이라는 소설이 있다. 일본에 처음으로 복음이 들어가던 때의 이야기를 담고 있다. 말할 수 없는 심한 박해를 받으면서도 믿음을 끝까지 지킴으로 순교하는 사람들의 모습과, 믿음이 약해서 굴복하고 배교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지켜보는 신부의 고뇌와 회의와 그안타까움을 밀도 있게 그린 작품이다. 예수 믿기로 작정한 사람들이 말로 표현하기조차 끔찍스러운 여러 가지 온갖 박해와 고문을 다 당하면서 예수를 부인하라는 협박을 받는다. 그리고 거기에 굴복하지 않고 죽어갔다. 이를테면 썰물 때에 바닷가에 성도들을 달아맨 십자가를 죽 세워 놓고 밀물 때가 되어 바닷물이 밀려들어 오면 점차적으로 잠겨서 죽게 되는 것이다. 예수를 부인하면 살 수 있는데도 수많은 사람들이 이처럼 순교해 갔다. 이 순교하는 사람들에게 믿음을 심어 주었던 포르투갈 신부는 너무도 가슴이 아프고 답답해서 하나님께 간절히 눈물로 기도를 한다. "오 하나님! 능력을 나타내 주십시오. 저들을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울부짖는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무런 능력을 나타내시지 않았다. 포르투갈 신부는 땀과 눈물을 흘리며 더욱 안타깝게 기도한다. "하나님, 당신은 왜 침묵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그러자 그의 귀에 뚜렷한 음성이 들려왔다. "나는 침묵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고통을 함께 나누고 있을 뿐이다." 그렇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믿음이다.

나는 근간 침묵하시는 그러나 고통을 분담하시는 주님의 가슴을 느낀다. 우리나라 정권이 바뀌어 가는 과정 속에 교회의 새벽종소리를 지워버리고, 군대의 군복 숫자를 줄여버리고, 우리의 진설 속의 단군이 신격화 되며, 심지어 정부안건으로 예배당 건축법까지 들먹거리고, 교회 기부금증서 확인 조회 문제에까지 이르게 되니 회개함이 미흡한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침묵과 고통분담은 언제까지일까? 염려스럽다. 나라의 동북쪽은 가뭄이요, 서남쪽은 폭설이라. 사건마다, 곳곳마다 일어나는 시위와 폭동 그리고 각종 재해는 혹 하나님이 침묵을 깨시는 것이 아니신지 두려움을 금할 수 없다. 일천이백만 성도들의 회개 운동과 나라를 이끄는 이들의 진정한 애국애족이 무엇인지 심도 있는 깨달음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한다.

❀ 알려드려요

◆ 에스컴(구 예수사람운동)

1) '목동 모임'
일시: 1월 7일(토) 오후6:30 장소: 베드로선교센터 5층 강의실

2) '춘여고 엘리에셀 집회'
일시: 1월 14일(토) 오후6:30 장소: 동부장로교회 소예배실

3) '에스컴 프레이즈'
일시: 1월 21일(토) 오후6:30 장소: 중앙성결교회 소예배실

4) 66 고3영성훈련!!!!
일시: 1월 3일~27일 월,화,수,목,금/2시~5시
내용: 영어찬양, 로마서성경공부, 강의
장소: 베드로선교센타 5층 추수홀
문의: 분의: 244-5400/018-305-5171 신유집간사
[cafe.daum.net/holykids]

◆ 한국대학생선교회(C.C.C.)

1) '간사 IBS'
일시: 1월 9일(월)~13일(금) 장소: 서울 부암동 훈련원
문의: 254-5776

◆ 예수전도단

1) 춘천 회복을 위한 화요모임
일시: 매주 화요일 오후 6:30 장소: 춘천등부교회 소예배실
대상: 연령, 교단을 초월한 모든 그리스도인
일정: 12월 20일 ~ 2월 28일

2) 브로스길라(중보기도)모임
춘천과 예수전도단을 위한 중보기도 모임
시간: 매주 월요일 오후 7시
장소: 춘천지부 사무실(한신아파트 맞은편)
대상: 가정주부(관심있는 자메님)
문의: 033-252-1128

3) 춘천 3기BDTS(직장인 독수리제자훈련학교)
일시: 2006년 3월 23일~2006년 9월 초
원서접수: 2006년 1월 2월 말
원서배부: 화요모임, 춘천지부, http://cafe.daum.net/CCBDTS

◆ JDM

1) '기독교사 수련회'
일시: 1월 4일(수)~7일(토) 장소: 세계제자훈련원(WDTI)
대상: 유치, 초중고등학교 및 교대, 사대 예비교사들
회비: 85,000원(예비교사 6만원, 부부교사 15만원)

2) '청소년 수련회'
일시: 1월 17일(화)~20일(금) 장소: 세계제자훈련원(WDTI)
회비: 6만원 문의: 252-3192 / 011-9058-3192

◆ IVF

1) '아볼로 성경학교'
일시: 1월 2일(월)~14일(토) 대상: 대학 1학년 전원
장소: 춘천 강남감리 교회(칠전동)

2) '섬김이 훈련'
일시: 1월 2일(월)~14일(토) 장소: IVF 회관
대상: 리더

3) '말씀과 삶 훈련'
일시: 1월 9일(월)~14일(토) 장소: 춘천 수립장
대상: 대학 3, 4학년

4) 'MISSION 춘천'
일시: 1월 16일(월)~19일(목) 장소: IVF 회관
대상: 선교에 관심있는 청년 문의: 252-5200

◆ 어린이전도협회

2006년 새학기 강습회 / Super Seminar
일시: • 오전반 1월 23일, 24일, 25일 - 9:30부터 1:00까지
• 저녁반 1월 23일, 24일, 26일 - 6:30부터 10:00까지
인원: 1단계 40명 / 2단계 30명 / 3단계 30명 (선착순)
등록금: 1인당 20,000원 / 등록 마감일 : 1월 20일
- 마감일 이후 당일 등록은 받지 않습니다.
입금계좌: 농협 203-01-391337 어린이전도협회
문의: 253-1443, 242-8291 [http://cafe.daum.net/cefch/]

◆ GBT

1) '25회 캠프 위클리프'
★국내팀 - 대전침례신학교
일시: 2006년 1월 9일~26일(3주간)
★네팔팀 - 네팔, 카트만드
일시: 2006년 1월 4일~25일(21박22일간)
문의: GBT춘천지부 252-3927 김대원 간사 33@gbt.or.kr

◆ 성서유니온 춘천지역 독자세미나
주제: 하나님 나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강사: 양용의 교수(에스라성경대학원대학교 교수)
일시: 2002년 2월 2일(수) 오후 7:00~10:00
장소: 에덴교회(합호광장에서 후평동방향 왕십지언사 4층)
주관: 성서유니온 강원지부, 에덴교회 회비: 무료
문의: 033-748-3577, 256-8786; 011-367-4618

◆ 로임 클리비

1) 피스메이커 세미나
강사: 이현 목사(님서울교회 당회장)
일시: 2006년 1월 8일(주일) 오후4:30 장소: 춘천중부교회

2) 쿠키비성찬 중고등부 동계수련회
강사: 정병화 목사(섬기는교회 청소년부 담당/독수리 대안학교 교목 역임)
일시: 2006년 1월 16일~19일
주제: 일어날 때라! 빛을 비출 때라!(사60:1)
장소: 경기도 가평군 상면 덕현리 후암교회 수양관
주관: 로임 클리비(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믁자들)
문의: 033-253-6958(문충식 목사)

◆ 2006년 신년교례회
일시: 1월 4일(수) 오전 11시
장소: 귀빈레스토랑(춘천MBC 광장 앞 안보회관)
주최: 춘천기독교연합회 문의: 256-1260

◆ 두란노 어머니학교 춘천2기 개설
일시: 2006. 2. 22~3.22 매주 수요일 오전 10시~오후 3시
장소: 순복음춘천교회 교육관 3층
회비: 10만원 문의: 김희숙 011-363-0926

<성시신문 후원자를 찾습니다>

후원계좌: 농 협 203-02-280238 조남진
조 흥 716-01-001389 조남진
우체국 210022-02-129749 조남진
1구좌 5천원, 2구좌 1만원
(성시화를 위한 구독헌금에 동참합시다)

[성시화 후원자 명단]

강촌감리교회	나눔성결교회	남춘천감리교회
늘사랑 교회	동신장로교회	순복음춘천교회
순복음하나교회	사암중앙교회	소양성결교회
소양제일성결교회	사랑의장로교회	새순성결교회
순복음열린교회	사우동장로교회	서부감리교회
석사감리교회	온누리장로교회	예광침례교회
에딤교회	임신교회	주찬양교회
중앙장로교회	춘천동부장로교회	춘천성결교회
춘천중앙감리교회	평화감리교회	춘천제일장로교회
한빛장로교회	강원시스템	천일현수막
해비타트춘천지회	의암기도원	앤투어
유림닭갈비	쏘인테리어	디티피아
농협선교회	김 준 언	김 길 홍
김 현 철	김 영 명	민 병 업
박 동 환	성 기 온	신 성 균
신 종 철	안 미 애	안 정 숙
엄 필 남	오 흥 수	이 용 규
이 원 기	이 판 호	이 학 규
유 근 창	장 기 영	정 찬 복
조 은 제	최 경 용	최 상 호
최 치 광	한 희 현	황 병 찬
허 순 영	홍 성 운	홍 순 복

2006년 표어 Vision2011, 그 특별한 여행을 위한 새로운 출발

기 독 교
대한성결교회 시 온 교 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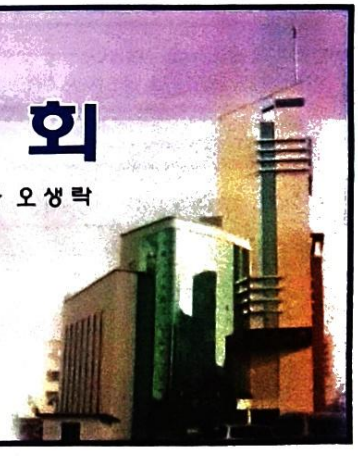
담임목사 오 생 락

시온교회 입당행사

1. 입당감사 특별새벽기도회 : 2006. 1. 2(월) - 21(토). 오전 5:30
2. 심령부흥회 : 2006. 1. 8(주일) - 11(수) 새벽/오전 5:30, 낮/오전10:30, 저녁/오후7:30
3. 입당감사 예배 및 임직식 : 2006. 1. 22(주일) 오후 3:30

예배시간
주일1부/오전 7:30, 2부/오전 9:00, 3부/오전 11:00, 오후예배/오후 2:00
수요예배/ 오후 7:30, 유치부/ 주일 오전 11:00, 아동부/ 주일 오전 9:00,
청소년부/토 오후5:00, 청년부/ 토 오후 7:30

☎ 033)262-8534



광 고

2006년 춘천의 성시화를 축하합니다.

기독교 대한감리회 광염교회
세상에 희망을 주는 교회
담임목사 박 인 관
☎ 263-5007

기독교 한국침례회 거성교회
착한 양, 착한 목자
오직 예수, 예수 사랑, 이웃 사랑
희망의 증거가 되는 교회
담임목사 김 수 복
교회: 252-6700 목사관: 252-6757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나눔교회
예수님처럼(in his step!!)
담임목사 피 종 호
☎ 251-9191
www.ccnanum.org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사임중앙교회
모델도시건설
명화예수마을 실현
담임목사 최 상 도
☎ 261-7727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소양제일교회
"세 번째 봉우리를 향하여"
담임목사 이 주 호
☎ 262-0999

기독교대한 하나님의성회 열림순복음교회
오늘은 춘천,
내일은 강원과 한국
모레는 세계를
담임목사 신 성 균
☎ 253-7227
011-9795-8148

기독교 한국침례회 예광교회
예수사랑, 교회사랑, 춘천사랑
담임목사 조 영 춘
☎ 252-1004
010-7347-9004

대한예수회 상 호 회 운해교회
오직 성령으로 내증인이 되리!
담임목사 지 용 찬
☎ 241-4315
011-372-6200

대한예수회 상 호 회 춘천사랑의교회
차를 마시며 책을 읽게 될 수 있는 로뎀나무 북카페 운영 (시간: 오전 11시~오후 9시)
※직접 만든 빵과 커피를 시중보다 20% 저렴하게 판매
담임목사 윤 대 영
북카페 ☎ 241-8083
교 회 ☎ 241-8017

기독교 대한감리회 장촌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담임목사 김 성 호
☎ 261-0035
011-372-9100

대한예수회 상 호 회 화목교회
배우고, 섬기며
화목케 하는 교회
담임목사 문 충 식
☎ 253-6958
010-8253-6958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정안교회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담임목사 고 재 만
☎ 241-3338
011-9058-3338

"생산자(농사꾼) 직접 판매합니다"
춘천농장에서 직접 재배한 "참마" 직접팝니다!!
사국참마
마요리: 참마쉐이크, 생참마, 과일과즙, 참마무침, 참마건강주, 참마구이, 참마찜, 참마전


대형할인매장과 재래시장보다 30% 이상 저렴합니다.
※ 택배가능 ※
뿌리가 주는 최고의 천연강장제!!
산삼의 효능에 맞먹는 신비의 산약!!
문 의 ■ 춘천직판장 ☎033)244-4947, 010-6780-7330 ■ 농장 ☎033)263-4947 ■ 춘천시 효자1동 682-8번지

2006학년도
www.world.ac.kr
세계 사이버대학(2년제) 신입생모집요강
사회복지과(보육교사2급, 사회복지사2급 동시수여) / 관광호텔외식과 / 부동산경영학과(공인중개사, 감정평가사, 주택관리사) / 인터넷정보과 / 레저스포츠과 / 피부미용뷰티과
동영상수업, 코스웨어방식, 실습을 통한 최상의 수업환경
장원지역 학습관 ○ 장학혜택 10% 지원 선착순 모집
office of information of BDU University
BDU대학교 홍보실
bduuniv.com ■ 모집일정/원서접수: 2006년 1월 7일(토) ~ 24일(화) ■ 모집단위/전화 033)264-0451~3, 지역학습관
2006 학년도 신 · 편입생 모집요강

학 부	전 공
사회복지학부	사회복지 / 아동복지 / 복지경영
사회경영학부	경영 / 부동산
호텔관광학부	호텔관광
디지털컨텐츠학부	인터넷컨텐츠 / 생활디자인
계	

■ 각종 자격증 ■
1. 학사학위증
2. 사회복지사 2급
3. 보육교사 2급
4. 사회복지상담자 1급
5. 케어복지사 1급
6. 유아영재교육사 1급
7. 청소년지도사
8. 방과후 아동교사
9. 임상심리사
10. 공인회계사
11. 공인중개사
12. 감정평가사
13. 호텔지배인

●교육인적자원부 소속 4년제 대학교

www.Montessori.co.kr
성민대학교➡부설한국선교신학교, 국제몬테쏘리선교신학교

신 학 과	2년제	
몬테소리학과	1년제	고졸이상
케어복지학과	1년제	
목 회 학 과	2년제	
선 교 학 과	1년제	고졸이상
요양관리학과	1년제	

▶▶ 선착순 모집 ◀◀
문/의/전/화 ☎033)264-0451~3
016-286-0451